

동양고전의 으뜸 '주역'의 본격연구 활발

개설서에서 철학·역사·과학론 제창까지 다양

역학이란 동양고전의 최고로 일컬어지는 역경(易經)의 해석과 그 해석의 역사연구까지 아우르는 학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역학이 학문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역경의 점술성만 강조되어 운명을 점치는 역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역학연구 서들이 책으로 묶여 일반에게 선보이는 것은 역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오천년전 상고시대 제왕인 태호복희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역경은 하나라 시대의 연산역(連山易)과 은나라 시대의 귀장역(歸藏易)을 거쳐 주나라 시대에 와서 주역(周易)으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일컫는 역은 '주역'이다. 이는 현존하는 유일한 텍스트가 주역인 까닭이다.

이러한 주역을 근간으로 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묶은 것으로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개설서 또는 입문서, 주역해석의 역사를 다룬 책, 그밖에 역학의 원리를 다른 분야에 응용한 책이 그것이다.

철학·역사적 입장의 연구 다각화

《주역철학의 이해》(高懷民 지음, 정병석 옮김, 문예출판사)는 꽤 설명에 그쳤던 기존 주역 연구서의 틀에서 벗어나 주역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해석한 개설서이다.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역해석사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유가와 도가 두 학파의 입장에서 주역 속에 담긴 철학을 형이상학적, 철학적, 인간학적, 윤리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제는 《대역철학론(大易哲學論)》.

중국사회과학원 이신(李申)박사의 《주역지하설해》(周易之河說解)를 번역한 《주역》(이주행 옮김, 인간사랑)은 주역을 200여 년의 역사를 도도하게 흘러온 한줄기 강에 비유한다. 이 주역의 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는 역학의 기본지식, 즉 역경의 내용, 구조, 점복의 방법에서부터 그 속에 간직된 지혜를 살핀다. 아울러 천문역법 수학 의학 도교 세계를 예측학 등과 같은 고대의 자연과학들과 주역의 관계를 간명하고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풍요로운 역학의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주역연구》(I.K. 슈츠스키 지음, 오진탁 옮김, 한겨레)는 저자의 소련과학아카데미 동

동양고전의 최고로 일컬어지는

역학은 그동안 학문으로 인식되기보다

역경의 점술성만 강조돼온 게

사실이다. 최근 잇따라 출간되고

있는 역학연구서들은 역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들 책은 주역을

철학적 입장에서 해석한 본격

개설서에서부터 역사와 문화, 과학론을

제창한 이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양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문헌학 박사학위논문을 편집한 책으로, 구양수(歐陽修)의 유명한 논문, 소순(蘇洵)의 주역비평 등 다른 연구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주역 관련 자료를 번역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번역서와 함께 국내 학자의 주역연구서도 적지 않게 나와 있다. 《주역의 이해》(곽신환, 서광사)는 그 대표적인 책으로 주역의 철학 윤리 사상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주역 속에 나타난 자연관과 인간관을 살피고 있다. 주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이 드물던 지난 90년, 국내에서 진행된 주역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일반대중에게 소개한 최초의 책이라 볼 수 있다.

《새 시대를 위한 주역 상·하》(서정기 역주, 글), 《주역입문》(조용일 지음, 동성)은 모두 주역을 일반대중들도 알기 쉽게 해석한 주해서. 독단적이고 관념적인 접근을 배제, 학문적 체계와 사상적 논리에 철저하여 전통적 주역학을 재정립했다. 《주역의 현대적 조명》(한국주역학회 엮음, 범양사)은 한국주역학회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모은 책으로 한국주역학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다.

역학 연구서의 또 한갈래는 역학연구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주역의 원천은 점치는 방법을 기술한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한권의 책을 텍스트로 한 무수한 전(傳), 주(注)의 해석서들은 주역을 더 이상 한권의 점술서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시대나 유파를 달리한 무수한 연구자들의 연구와 해석에 힘입어 주역은 과거 중국문화의 주류였던 유가(儒家)사상의 으뜸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천문 역법 의학뿐만



운명을 점치는 역술서와는 달리 최근엔 본격 '주역' 연구서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가치관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양사상의 '모든 것'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역 연구의 역사를 살피는 일은 한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와 역사를 살피는 것과 같다.

《주역철학사》(梁韋弦 외 지음, 심경호 옮김, 예문서원)은 주역의 성립부터 현대역에 이르기까지 주역연구의 두 흐름인 의리역(義理易)과 상수역(象數易)을 중심으로 그 방계의 연구사까지 통틀어 정리한 책이다. 역자가 보충한 '중국 역학관련서 목록'과 '고려 조선조의 역학서 목록'도 좋은 자료이다.

대만대학 철학과 교수인 고회민교수의 《선진역학사(先秦易學史)》와 《양한역학사》도 각각 《중국고대역학사》(송실대 동양철학연구소, 송실대 출판부)와 《상수역학》(신하령 지음, 김태완 공역, 신지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사상사적 관점에서 역학의 본질과 그 발전과정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특징.

한편 주역의 원리를 다른 분야에 응용한 저서도 몇권 나와 있다. 《주역과 중국의학》(楊力 지음, 홍원식 외 옮김, 범인문화사)은 그 대표적인 책. 체계적인 논술과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를 서로 결합하는 형식을 써서 주역과 중국의학과의 관계를 깊고 넓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으로 본 현대과학》(蔡恒息 지음, 김일곤 외 옮김, 여강)은 역경을 철학이나 도덕, 윤리만 강조하는 사상이라거나 혹은 점서(占書)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현대과학, 특히 천문학·물리학·생물학·수학 등과 역경의 세계

를 접합시킨 새로운 과학론을 제창하고 있다.

외국의 성과 번역 소개에 그쳐

자신의 신비체험을 강조하거나 독단적 이론을 제시, 보편성을 얻기가 힘들었던 이른바 제야 역학연구자 혹은 술사들의 역술서 일색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일반에 공개된 국내 학계의 역학연구는 아직 외국의 연구성과를 번역, 소개하거나 주역의 일반개념을 해설한 개론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곽신환(송실대)교수는 "조선조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교과과정이었다던 역경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와, 서구의 합리주의 정신을 양모하고 유학을 경시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오랜 단절을 겪었다. 우리 역학의 역사는 20년 정도로 일천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주역의 본원지이기도 하지만 역학연구가 단절없이 이루어져 그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외국의 앞선 연구성과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역학 연구가 단절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거둬올린 뛰어난 역학연구의 업적들도 서둘러 밝혀져야 한다. 역사 속에서 역학이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은 곧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원천의 해석도 중요하다. 주역이 야말로 인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세상을 사는 이치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박남정>